

# 전북현대, FC서울 넘고 우승 가능할까?

### 35라운드 울산과 0대0 비겨 승점 61점 골득실 +24로 아슬아슬한 1위 유지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의 K리그 3연패 행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전북은 22일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35라운드에서 울산과 0대0로 비겼다. 다행이 같은 시각 열린 FC서울과 상주상무의 경기가 2대2로 끝나며 아슬아슬한 1위를 유지했다. 전북은 현재 승점 61점 골득실 +24로 1위에 올라있고 서울은 승점 61점 골득실 +17로 2위에 올라있다. 전북은 지난날까지 서울과 승점차이를 10점 이상 벌리며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짓는 모습이었지만 심판매수 파동으로 인해 승점을 9점 삭감 받으며 FC서울의 거센 추격을 받게 됐다. 시즌 종료까지 3경기가 남은 가운데 우승의 향방을 가를 가장 중요한 경기는 최종전 38라운드에서 펼쳐질 전북과 서울의 경기다. 전북은 현재 전남 드래곤즈, 상주 상무, FC서울과의 경기가 남아있고 서울은 제주 유나이티드, 전남 드래곤즈, 전북 현대와의 경기가 남아있다.



리그우승을 위해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는 전북현대 서포터즈

중반 김보경과 이재성에서 시작돼 레오나르도와 로페즈의 창의적인 플레이로 늘어난 득점력을 보이던 공격진은 승점삭감 이후 김신욱과 이동국에게 의존하는 선공은 축구로 공격스타일이 바뀌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항상 중요한 순간에 해결사 역할을 하던 이동국은 PK를 실패하고 쉬운 골

찬스를 놓치는 등 컨디션 난조를 겪고 있다. 수비진은 90분 전체를 보면 좋은 경기운을 하고 있지만 순간순간 상대 역습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쉬운 골을 연속에서 허용하고 있다. 시즌 중반 무패행진을 질주할 때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3경기가 남은 가운데 관순태를 중심으로

수비진의 결속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울산전을 마치고 0-0은 양 팀 모두에 의미 없는 결과라며 아쉬움을 들어낸 최강희 감독이 팀을 재정비하고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국내리그 우승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근기자



김제시청 ACE야구단 주말리그 3연패

김제시청 ACE팀(단장 손삼국 감독 유진권)이 2016년 김제시 야구동호인 주말리그에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ACE팀은 지난 22일 김제 스포랜드 야구장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결승전에서 시청BEST(감독 정양호)를 꺾고 리그최초 3연속 정상에 올랐다. 리그 1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ACE팀은 준결승에서 김제경찰서를 난타전 끝에 20-19로 물리친 시청BEST를 15-6으로 물리치고 승리했다. 초반 팽팽한 투수전으로 시작된 결승전은 경기 중반 양재환 선수의 선제 3점 홈런과 강성정 유진권 선수의 효과적인 계투로 막판 BEST의 추격을 따돌렸다. 지난 2007년 김제시청 직장팀이 창단된 이후 도민체전, 전라북도지사배, 제주시장기 전국공무원야구대회 3위, 리그 준우승 3회 등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올해 동호인리그 3년 연속 우승을 통해 주말리그 강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시청 BEST팀도 주말리그 최초로 결승에 오르는 기업을 토하며 내년시즌 전망을 밝게 했다. 손삼국 김제시청야구단 단장(행정지원국장)은 "단일 동호회팀이 리그 최초로 우승·준우승을 이룬 의미 있는 한해이며 열심히 해준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하고 내년부터 ACE·BEST 단일팀으로 전국대회 우승에 도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태기자

# 정규리그 디펜딩 챔피언 KCC, 2연패로 슬프게 시즌 출발

### 고양 오리온스에 81대 69로 완파·창원 LG 79대 67 패배... 두 경기 평균 68득점, 80실점

2016-2017 KCC 프로농구가 지난 23일 고양 오리온스와 전주 KCC 이지스의 경기를 시작으로 8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간 가운데 KCC이지스는 토요일 일요일 경기에서 내리 2연패를 거두며 기분 나쁜 시즌을 시작했다. 토요일 고양 오리온스와의 홈경기에서는 30점을 넣은 헤인즈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81대 69로 완파 당했다. 일요일은 김중규가 빠진 창원 LG와의 경기에서 79대 67의 패배를 당했다. 두 경기 평균 68득점, 80실점으로 공수 양면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였다. 전주 KCC는 검증된 용병 리오 라이온스의 합류와 가드진의 성공적인 교봉정리로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막상 투쟁을 열

어보자 리오 라이온스는 지난 시즌 포웰과 같은 외각중심의 움직임으로 팀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시즌 최고 외국인선수로 꼽힌 안드레 에밋은 날카로운 샷이 있지만 지난 시즌과 같은 파괴적인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토요일 열린 고양 오리온스와의 경기에서는 고양의 단신 용병인 바셋의 다이나믹한 플레이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에밋은 일요일 경기에서 가벼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다. 다행이 개선의 여지는 있다. 하승진의 몸 상태는 2분 이상 출전 가능한 만큼 좋은 상태로 보이고 전태종과 김효범은 여전히 득점력을 선보이고 있다.

안드레 에밋 역시 시즌 초반이라 조금 무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공격력에서만큼은 지난 시즌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전으로 거둔 송교창의 성장과 이현민의 적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난 시즌과 같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리오 라이온스가 전주 KCC에 맞는 퍼즐인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 시즌 4라운드까지 고전을 면치 못한 KCC의 당시 용병은 리카르도 포웰이었다. 포웰은 무려4시즌을 KBL에서 인정 받은 최고의 포워드 용병이었다. 하지만 KCC에서의 포웰은 에밋과 공격루트와 볼 소유 양면에서 최악의 시너지를 냈다.

4라운드에서 KCC 프론트가 문제를 깨닫고 정식 센터용병 하버트 힐을 영입하며 이지스의 놀라운 연습행진이 시작된 바 있다. 이번 시즌 리오 라이온스 역시 공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임 보다 공을 소유하고 본인이 주도 할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포워드 용병이다. 라이온스가 현재처럼 팀에 녹아들지 못한다면 빠른 용병교체도 생각해볼만한 대목이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KCC의 시험무대는 28일 울산 모비스전과 28일 원주 동부전이 될 예정이다. 다행이 모비스전은 포인트가드 양동근이 부상으로 결장이 확정돼 있다. 과연 KCC이지스 농구단이 조지력을 끌어 올리고 다시 왕좌에 등극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김민근기자

## 광저우 에버그란데, 6년 연속 리그 우승

중국 프로축구 광저우 에버그란데가 6년 연속 슈퍼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광저우 에버그란데는 23일 중국 광저우의 텐허 스타디움에서 열린 연변과의 2016 중국 프로축구 슈퍼리그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로써 18승7무패(승점 61)를 기록한 광저우 에버그란데는 2위 장쑤(54)와의 승점 차를 7로 벌리며 잔여 2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우승을 확정했다. 지난 2011년 우승을 시작으로 6년 연속 정상을 지키는데 성공했다. 2011년 한국 출신 이장수 감독의 지휘하에 슈퍼리그에 승격해 곧장 우승을 차지한 광저우는 마르첼로 리피, 파비오 칸나비노(이상 이탈리아), 루이스 스몰라리(브라질) 등 세계적인 명장을 영입해 정상을 유지했다. 든든한 재정을 바탕으로 특급 선수도 꾸준히 보유했다. 이날 선제골을 터뜨린 파울리뉴는 브라질 국가대표 출신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에서 뛰었던 특급 선수다. 광저우는 1-0으로 앞서다 후반 막판 한국 국가대표 출신 윤빛가람에게 동점골을 내줬지만 우승 전선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김민근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